



오지환 진해수 송은범

## 집토끼 모두 잡겠다는 LG "FA 계약 적정선 고민이네"

오지환·진해수·송은범 측과 공감대

"세 명 모두 붙잡을 겁니다."

2020시즌 프리에이전트(FA) 계약에 나선 LG 트윈스의 기조는 명확하다. 내부 FA 자격 취득자인 오지환(29), 진해수(33), 송은범(35)을 모두 잔류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해왔다.

세 명 모두와 잔류에 대한 공감대도 일찍이 형성했다. 부지런히 움직였다. 5일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차린 차명석 LG 단장은 벌써 진해수 측 에이전트와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미 한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던 오지환 에이전트와는 19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송은범 측과도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대 과제는 오지환과의 계약이다. 2009년 LG에 입단해 유격수 자리를 책임진 프랜차이즈 스타인데다 팀 내부적으로 대체 불가 자원이다. 올 시즌 134경기에서 타율 0.252 53타점 63득점으로 전년 대비 타격 성적이 두루 하락했지만, 12실책으로 0.981의 수비율을 기록하며 수비 쪽에서 확실한 존재가치를 입증했다. 시즌 막바지 무릎 부상을 입은 오지환을 대신해 구본혁이 포스트시즌을 치르며 유격수로서의 가능성을 엿보였지만 주전의 역할을 온전히 맡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

관건은 타 구단과의 '눈치 싸움'이다. 이번 FA 시장에는 뚜렷한 최대어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모두들 숨을 죽이고 탐색전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오지환의 경우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KIA 타이거즈 내야수 안치홍, 김선빈이 모두 FA 자격을 취득했다. 모두 원 소속구단에 잔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서로가 먼저 계약의 '기준점'을 제시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타 구단으로의 이적이 여의치 않은 진해수, 송은범 역시 마찬가지다.

"11월 안에 끝내겠다"는 차 단장은 "허락된 예산 가운데 모두 잘 대응해주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집토끼 단속에 나선 LG로선 FA 계약의 적정선이 고민이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프리미어12' 대표팀 기대주 강백호 언제 터질까?

# 훈련때마다 홈런쇼... '괴물'은 지금 예열중



미국전 대타로 나와 한차례 삼진 선배들, 강백호 장타 기대감 여전 "열심히 준비해 찬스때 꼭 살릴 것"

"팀이 이기는 게 우선이죠."

이정후(21·키움 히어로즈)의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맹활약은 또 다른 '타격 천재'의 활약을 궁금하게 만든다. 바로 강백호(20·KT 위즈)의 존재다.

강백호는 슈퍼라운드 1차전 미국전에서 대타로 나서 삼진으로 물러나는 등 11일까지 이번 대회에서 아직 안타가 없다. 선발출장 기회도 잡지 못해 대타로만 타석에 들어섰다. 빼어난 활약을 펼치는 대표팀 선배들의 그늘에 가려 아직 '괴물'의 본성을 보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가장 기대되는 타자 중 한 명이다. 강백호는 타격 훈련에서 선배들의 눈을 가장 많이 사로잡는 타자다. 강하게 때리는 타구가 거의 모두 담장을 넘어가 선배들의 탄성을 저절로 자아내게 만든다.

대표팀의 숨은 병기라 하기 충분하다. 강백호는 "도쿄돔은 처음 와 봤다. 공이 조금 더 잘 보이는데, 확실히 타구가 잘 뜨는 느낌이다"며 자신의 좋은 컨디션을 전했다.

많이 받지 못하는 기회에 아쉬움 범도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자신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강백호는 "일단 팀이 이기는 게 우선이다. 나는 내가 나갈 수 있는 찬스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게 맞다. 그를 위해서는 지금도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한일전(16일)에 대해서 남다른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청소년 대표시절 우위를 잡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다. 강백호는 "개인적으로 내가 뛰었을 때 한일전 전적이 1승1패다. 열심히 즐기고 싶은데, 나가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12일 대만과의 2차전을 앞두고 지바 조조마린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표팀 사전 훈련에서도 강백호는 구슬땀을 흘렸다. 경기에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에게 '게으름'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신의 과력을 선보일 타이밍을 준비하며 묵묵히 때를 기다린다.

천재는 자신의 재능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조급해 하지 않는다. 지금의 강백호에게 실로 어울리는 말이다.

지바 |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타격 천재'는 예열 중! 강백호는 지난해 KBO리그에 데뷔해 2년 연속 뛰어난 활약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번 프리미어12에서는 강백호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그는 "팀 승리가 우선"이라며 한 번의 찬스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포츠동아DB

## 1루까지 딱 3.8초...일본대표팀 '1할 타율' 우코가 뜨는 이유

탁월한 주루본능 호주전서 일본 구해 '스페셜 리스트'의 진정한 가치 보여줘

102경기 타율 0.196(102타수20안타), 1홈런, 6타점, 출루율 0.212, 27삼진, 2볼넷.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일본대표팀 내야수 슈토 우코(23·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올 시즌 거둔 성적이다. 냉정히 살펴보면 국가대표라는 타이틀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다. 오카다 요시후미(은퇴·전 지바 롯데 마린스), 마에다 야마토(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비력



23 周束 佑京 Shuto Uko 슈토 우코

기록한 우코의 주루 능력에 주목했다. 타석에서 1루까지 3.8초 만에 도달하고, 5.7초 만에 50m를 주파하는 스피드뿐만 아니라 상대 배터리의 습관을 간파해 도루를 감행하는 센스까지 인정받은 결과다.

을 자랑하는 선수들도 대표팀 승선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나바 아쓰노리 일본대표팀 감독은 안타보다 더 많은 25개의 도루를 기록한 우코의 주루 능력에 주목했다. 타석에서 1루까지 3.8초 만에 도달하고, 5.7초 만에 50m를 주파하는 스피드뿐만 아니라 상대 배터리의 습관을 간파해 도루를 감행하는 센스까지 인정받은 결과다.

일본 야구전문지 '주간 베이스볼'도 "슈토의 스피드는 일본프로야구(NPB) 12개 구단을 통틀어 최고 수준이다. 올 시즌 소프트뱅크를 상징하는 선수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슈토의 주루 센스는 일본을 패배의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했다. 11일 호주전에서 1-2로 끌려가던 7회말 대주자로 1루를 밟은 뒤 2루와 3루를 연달아 훔쳤고, 겐다 쇼스케의 기습번트 때 번개 같은 스피드로 홈을 파고들며 3-2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나바 감독도 "매우 큰 1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슈토의 활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기만의 특별한 무기를 살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준다. 포스트시즌(PS), 국제대회와 같은 단기간은 점수차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겨야 한다. 1점 차 승부에서 이른바 '짜내'는 점수의 가치는 엄청나다. 이 상황을 KBO리그에 대입하면, 신민재(LG 트윈스)와 유재신(KIA 타이거즈) 등의 주루 스페셜리스트에게 PS 엔트리 한자리를 할애하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의미다. 슈토는 "경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다는 느낌을 유지해야 한다"고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성민규 롯데 단장 "FA 포수 영입? 외인 전문포수도 있다"

"FA 이지영·김태균 오버페이 NO 유틸리티 자원보단 전문포수 관심"

거인의 안방을 지키는 외국인? 롯데 자이언츠가 외국인 포수 영입을 검토 중이다. 이유 있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2020시즌을 앞둔 롯데는 외인 조카에 한창이다. 브룩스 레일리과 재계약이 유력한 가운데, 나머지 두 자리를 고민 중이다. KBO 실행위원회가 내놓을 외국인 선수 제도 변경에 따라 '타자 2명·투수 1명' 활용 가능성도 열려있긴 하지만, 아직 이를 구체화할 단계는 아니다.



성민규 단장

"롯데가 다각도로 후보를 검토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다. 성민규 롯데 단장은 최근 "외국인 포수 영입 가능성이 꽤 높다. 그저 '언론 플레이'로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 이지영과 김태균이라는 자원이 있지만 이들에게 '오버페이'는 결코 하지 않겠다는 각오이자 과거 '패니 바'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역대 KBO리그에서 외국인 포수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당장 2019년 크리스티안 베탄코트(NC 다이노스)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성 단장은 "포수도 볼 수 있는 유틸리티 자원이 아닌 전문 포수를 영입하면 된다. 소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록을 살펴봐도 포수에게 엄청난 타격을 기대하긴 어렵다. 조정득점생산(wRC+)은 리그 평균 공격 생산력을 100으로 가정하는 지표다. 가령 wRC+ 110의 타자는 리그 평균보다 10% 더 높은 생산력을 보였다는 의미다. 2019시즌 포수 포지션의 wRC+를 살펴보면 양의지가 버틴 NC 다이노스(144.6)와 최

재훈을 중심으로 한 한화 이글스(110.2)를 제외하면 모두 100 이하였다. 그 중에서도 롯데는 16.4로 리그 최하위였다. 롯데 포수진의 생산력은 리그 평균 수준보다 83.6% 떨어졌다는 의미다.

만일 롯데가 리그 평균 수준만큼의 공격력을 기대할 외국인 포수를 데려온다면 타선의 위력은 순식간에 훌쩍 뛰다. 여기에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수비력 강화까지 계산한다면 외국인 포수의 가치는 타 팀보다 롯데에 더 클 수밖에 없다. 2019시즌 외국인 타자는 평균 wRC+ 135.4를 합작했다. 이보다 살짝 못 미치는 자원을 데려오더라도 롯데로서는 가장 약한 포지션을 평균 이상 수준으로 탈바꿈 시키는 셈이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롯데의 2020시즌 준비 과정이 심상치 않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